

신춘문에 당선작

시

어떤 소물리에

강혜원

모든 리벨은 사심이 없지
한결같이 청렴하다네
나 또한 사심 따윈 없으나 무료한 나의 혀는 미지의 회오리를 원하네

이룰래면 미 개봉 중고를 건디며
숙성과 산화와 변질의 경계에서
스스로를 누설하지 않은 가루한 맛
누대에 걸쳐 고단한 오르통을 미워하면서, 미워하지 않으면서
절치와 부심을 곱씹은 병숙의 태풍
태풍속 북돋운 외눈 같은 맛

제품명-언젠가는
생산년도-잊힌 지 오래
원산지-산비탈 자드락 뺏은 눈시를 발
맛-대대로 농축된 웅이 깊은 맛
특징-어딘가에 스밀 수만 있다면 드라이하게 글목을 전달 수 있음

맨 아랫간 먼지 쌓인 와인 병의 바디를 처안듯 닦아 주었네
이윽고 마개가 열리고
아적빈의 이토록 깊은 빛깔에 사로잡힌 사이
시음을 벗고, 농쳐버린 새콤과 상큼을 확보하려는 눈물겨운 심호흡

나는 가장 전문가다운 표정으로
평평 초코를 쏘듯 두서없이 웃는 17번 레이블의 브이아이피
오래 묵은 귀빈에게
함부로 묵혀진 이의 비밀을 청아하게 따르려하네

세상의 모든 단맛으로부터 격리된
빈 달빛 비탈진 귀가길
자꾸만 들러붙는 허기의 잔가지들 쳐내며
수도 없이 외치고 삼켰을 형언할 수 없는 이 맛을

* 소물리에:손님이 주문한 요리와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해주는 와인 감별사

시 심사평

소물리에의 삶, 와인의 삶 포개는 솜씨 기발

본심에 열여덟 명의 시가 올라왔다. 10대에서 60대까지 각 연령층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지방도시에서 시골에서, 거리에서 일터에서 자기의 방에서, 시에 골똥혔을 모습을 떠올리니 몽롱했다. 본심에 오른 만큼 언뜻 보기에 다 근사했다. 그 중, 시상(詩想)은 기발하지만 아직 밀그림 단계인 시, 상투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 시, 말을 대폭 줄여야 할 중언부언 시들을 추려냈다. 이효정, 오정순, 권명호, 강혜원 이 네 명의 시편들이 남았다. 이효정의 ‘손잡이의 시간’은 신선한 상상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은하수를 횡단하는 한 무리의 맘모스를 만나면’이나 ‘그리고 오래된 인류의 분실물을/하나 둘 태우고 싶어’ 같은 맥락에 있어서 뜬금없고 표현에 있어서

상투적인 구절이 걸렸다. ‘고서(古書)’는 완성도가 높았다. 판타지가 겹치지 않고 현실에 고즈넉이 배어들어 있다. 판타지가 주조인 시는 체험이 반짝칠 때 설득력이 생긴다. 오정순의 시편들은 풍경으로 정서를 풀어내는 솜씨가 일품이다. 매끄럽게 잘 읽힌다. 그런데 좀 늘어진다. 말을 압축하면 탄력이 붙을 것이다. 권명호의 ‘남일상화’는 시골서민의 풍취가 잔잔하고도 유머러스하게 그려진 서정시다. 당선작과 끝까지 겨뤘다가 아쉽지만 놓았다. 강혜원의 ‘어떤 소물리에’는 소재도 독특하고 표현도 기발하다. 화자인 소물리에의 삶과 와인의 삶을 포개는 솜씨가 여간 아니다. 기쁜 마음으로 당선작으로 올린다. <심사위원 이성부·황인숙>

시 당선소감

큰딸의 발걸음 응원해주세요

강혜원



▲1972년 광양 출생
▲조선대 국문과 졸업
▲논술학원 강사

큰딸 구두 680원, 풍나물 50원, 두부 30원……, 30년을 살아낸 늙은 한옥을 떠나오면서 어머니는 책장 서랍 속 몇 권의 가계부와 일기장, 빛바랜 편지 문치를 볼 속에 던져 넣었다. 당시 속에 일렁이던 뜻 모를 불꽃을 심 한 끝 틀림없는 썸 법과 쓸쓸한 몇 줄의 일기로 다독였을 어머니. 사라져 버린 그 못지 속에는, 성긴 눈송이 같은 밤을 먹고 도무지 퍼질 것 같지 않던 가계도를 주머니에 구기고 다니던 청년의 아버지가 삼동의 끝끝에서 최초이자 최후로 말한 사람의 고백도 함께 있었다. 귀한 말씀처럼 간직하며 이따금 꺼내 보고 싶었던 그것들을 조용히 태우시던 어머니의 남모를 회한이 오래도록 마음을 애었다. 그러나 그 불결은 꺼지지 않고 그날 이후로 뜨겁게 울고 있다. 때로는 그슬음을 피워 올렸고 때로는 깨질 듯 위태로웠지만 ‘시’의 얼굴로 나를 찾아와 넘실거린다. 겨울은 여전히 깊고 소용돌이를 품고 있는 강물 위로 튼튼한 다리를 놓을 재간이 내게는 없다. 이렇게 더듬거리며, 왜 그렇게 멀고 아슬하냐고 악을 쓰며 질을 것이다. 길이 아득해지는 날엔 모닥불을 피워 놓고 어머니가 내 핏줄 속에 흘러보내주신 눈물 어린 화법으로 곁은 손마타를 녹여 세상에다 대고 오래도록 연애편지를 쓸 것이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서툴겠지만 행복할 큰딸의 발걸음을 오래도록 지켜봐 주세요. 멀고 있는 어개를 두드려 일으켜주신 심사위원님과 광주일보사에 감사드립니다. ‘푸른 시의 방’ 강인한 선생님, ‘시인회의’와 강정숙 선생님, 정윤전 선생님, 고성만, 조성국, 김행만 선생님, 김재준 선배, ‘터알문학동인회’와 매서운 나의 독자 은주에게 감사드립니다.

<12면에서 계속>
겨우 안심이 된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괜찮으니 걱정 말라는 위로를 했다. 그러고는 다시 밭으로 나갔다. ‘정말 환청이었을까?’ 나는 마루에 누워서 의사선생님 말을 곱곰이 생각해보았다. “오빠! 이리 좀 와 봐.” 송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송이는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우리가 아침에 놓아준 잠자리들이 개미와 벌레들에 쌓여서 거의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있었다. “오빠, 우리가 아침에 놓아 준 잠자리가 죽어서 이렇게 됐나봐.” 송이 눈에 눈물이 그렇게그렇지더니 고개를 돌렸다.

동화 당선소감

맑은 샘물 같은 존재... 힘이 납니다

동화는 저에게 맑은 샘물 같은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 시골 학교에서 동화를 읽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서관이 없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빌려주시는 이야기책은 밤을 꼬박 새워 읽어오느라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신기한 물건이었습니다. 마흔을 넘긴 지금도 저에게 동화는 가슴을 설레게 하는 존재입니다. 시나 소설, 수필 모두가 다 좋은 문학이지만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동화인 것 같습니다. 좋은 동화책 한권을 읽고 나면 세상을 넘긴 지금도 저에게 동화는 가슴을 설레게 하는 존재입니다. 시나 소설, 수필 모두가 다 좋은 문학이지만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동화인 것 같습니다. 좋은 동화책 한권을 읽고 나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힘이 나는 걸 보면. 어느 날 부터인가, 동화에 대한 저의 짝사랑은, 차마 소리 내어 말하는 것조차 미안

“다 살아서 날아갈 줄 알았는데…….” 날개와 꼬리가 따로따로 떨어진 잠자리를 개미들이 까맣게 달라붙어서 어디론가 끌고 가고 있었다. 나도 눈물이 핑 돌았다. “이젠 잠자리 절대 안 잡을 거야.” 송이는 빈 곤충채집통을 재활용 분리수거 바구니에 넣었다. 나도 바지랑대에서 거미줄잠자리채를 분리시켰다. 송이와 나는 나란히 마루에 걸터앉았다. 마당 하늘 가득 고추잠자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며칠 동안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처음 무당거미를 만났던 곳으로 눈길이 갔다. 무당거미가 기둥과 감나무 사이에 열심히 거미집을 짓고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무당거미네! 이제 내 컵속에서 나온 거야?”

한 꿈이 되어 가슴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동화작가가 되고 싶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제 꿈에게 ‘넌, 잘 할 수 있다’며 용기를 주신 이정심 교수님, 고맙습니다. 비틀비틀 눈도 못 뜬 채 해매는 제 꿈의 눈이 되어주신 이성자 교수님 고맙습니다. 꿈꾸는 첫조차 죄송스럽던 신춘문에 당선이라는 소식을 듣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가 다른 누군가의 샘물이 될 수 있는 동화를 쓸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도 ‘산수문학’과 ‘솔향’의 문우님들이 계시고, 엄마를 가장 큰 라이벌로 생각하는 두 아이(꼬마작가들)와 무조건 믿어주는 남

안수자



▲1969년 함평 출생
▲방송통신대학교 국문과 3학년
▲제10회 동서커피문학상 동상

편이 있어, 앞으로도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미흡한 작품을 뽑아주신 광주일보사와 심사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동화 심사평

자연스러운 전개...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아 좋았다

예심을 거쳐온 작품을 읽고 ‘나이스 샷’, ‘불미나리 발’, ‘아미 또마께 바로바시’, ‘덧속에 사는 무당거미’ 네 편을 추려냈다. 이 가운데 ‘나이스 샷’과 ‘불미나리 발’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어린이가 주인공이다(이것은 다문화가정과 함께 최근 흔히 대하는 응모작의 한 가지 경향이기도 하다). 또한 두 작품 모두 동화라기보다 소설 쪽에 다분히 기울어 있고, 작가가 정작 말하려는 걸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공통점이 있다. 반면 다문화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미 또마께 바로바시’(방글라데시 말로 ‘사랑한다’는 뜻)는 그런대로 동화다운 틀을 유지하면서 무엇보다 구성이 탄탄했다.

그러나 너무 쉽게 문제가 해결되므로 뜸이 덜 든 밍키랄까 결정적인 감동을 얻어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덧속에 사는 무당벌레’는 제목부터 동화답다. 자연스러운 전개, 무엇보다 목에 잔뜩 힘이 들어가있지않아서 좋았다. “방굴마을”은 ‘빨리빨리’라는 말에 쫓겨 살던 도시의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다. 확연히 문물 방화이라 학교도 가지않았다. 하루 종일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거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잠자리나 매미를 잡으며 신나게 놀았다.” 이 부분에 응축된 작가의 말이 다 들어있다. 도시엔 ‘소리’가 없다. 소음뿐이다. 그러나 ‘방굴’에서는 귀가 열린다. 그리하여 자연의 소리, 생명체의 세미한 소리가 들린다. 부디

사물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그 소리를 똑바로 전하는 귀밝은 작가가 되기를 바란다.



강정규

▲1941년 보령 출생
▲서라벌에대 문창과,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
▲1974년 ‘소년’, 1975년 ‘현대문학’

으로 등단 ▲한국아동문학상, 세종아동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등 수상▲대표작 ‘다섯시 반에 멈춘 시계’ 동화집 ‘병아리의 꿈’ ‘토끼의 눈’ ‘새가 날아든다’ 등 다수 ▲아동문학 계간문에 ‘시와 동화’ 발행인



이성부

▲1942년 광주 출생
▲경희대 국문과 졸업
▲1960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시, 1966년 동아일보에 시 당선 등

단 ▲한국문학작가상, 한림문학상, 공초문학상 등 수상 ▲대표작 연작시 ‘전라도’ 시집 ‘야간산행’ ‘지리산’ ‘도둑 산길’, 산문집 ‘눈 뜨면 성령 산이 다가오네’ 등 다수



황인숙

▲1958년 서울 출생
▲서울에대 문창과 졸업
▲198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가

당선 등단 ▲동서문학상, 김수영문학상 등 수상 ▲대표작 시집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풀어 놓고’ ‘슬픔이 나를깨운다’ ‘자명한 산책’ ‘민스본하 야간열차’, 산문집 ‘나는 고독하다’ ‘지붕위의 사람들’ 등 다수

한정식 전문 레스토랑

아리랑하우스에서 맛있는 떡국 드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큰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세심한 서비스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날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난 해 부족했던 점을 채워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謹賀新年 올해도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상당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 - 7941

상무점

하남점

1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전제)
2관	썬데이즈(15세)/세미어드벤처(전제)
3관	나니아연대기(전제)/황해(18세)
4관	황해(18세)
5관	라스트갓파더(12세)/세미어드벤처(전제)
6관	트론-새로운시작(12세)
7관	트론(12세)/아메리칸(18세)
8관	헬로우 고스트(12세)
9관	헬로우 고스트(12세)
10관	라스트갓파더(12세)

영도시랑! 영화시랑! 매일 심야상영 /호남집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구. 런던악국사거리 ☎ 1544 - 0600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영도시랑! 영화시랑! 매일 심야상영 /호남집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영도시랑! 영화시랑! 매일 심야상영 /호남집대주차장 / www.cinus.co.kr

영도시랑! 영화시랑! 매일 심야상영 /호남집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